


[2025-001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5. 1.6.(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 LA한국문화원, LAUNCH LA와 공동으로 지역작가 공모전 <Edge of Now> 개최

- 2.16까지 참여작가 공모 마감, 3.6부터 문화원 갤러리에서 전시회 열려

*아트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다*



- ▶ 행사명 : LA한국문화원 & Launch LA 지역작가 공모전시  
'Edge of Now' (변화의 지평선)
- ▶ 공모접수마감 : 2025.2.16.(일), 22:59(미서부시간 기준)
- ▶ 공동주최 : LA한국문화원, LAUNCH LA
- ▶ 심사위원 : Sunook Park, Shana Nys Dambrot
- ▶ 자세한 정보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www.kccla.org](http://www.kccla.org) | <https://launchla.org/opencall/>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LAUNCH LA(회장 James Panozzo)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남가주 지역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시에 참여할 작품을 2025년 2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술작품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주간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그룹전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Edge of Now”(변화의 지평선)라는 주제 하에 재미 한인예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미술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커뮤니티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최측은 공모전을 통해 남가주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 영향력, 미디어, 재료 또는 방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이 창조되고, 나아가 지역 미술사회에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은 박선욱 교수(캘스테이트 롱비치 미대 교수, 독립 큐레이터)와 샤나 니스 담브롯 미술평론가(Shana Nys Dambrot 미국 미술평론가, 독립 큐레이터)가 함께 참여한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LA한국문화원과 미술 비영리단체인 LAUNCH LA와 함께 남가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한인 예술가와 다양한 커뮤니티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했다. 특별히 한인 미술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미술 작가는 공모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시각예술 작품을 개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문화원 웹사이트([www.kccla.org](http://www.kccla.org))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은 2월 16일(일)까지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 LAUNCH LA 소개

LAUNCH LA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예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복합적인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음악, 전시, 워크숍, 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작가들을 선정하여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 *Edge of Now*

"변화의 지평선"(Edge of Now)은 변화하는 문화적 영향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이에 반응을 탐구하는 전시다. 다문화적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현대 삶의 풍부한 모습, 개인적 및 공동체적 경험이 공유되는 순간, 그리고 자아, 공동체, 장소를 기념하며 도전과 함께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찾는다. 예술가들의 작품은 우리 시대를 정의하며, 현대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제공한다.